

이 시대의 화제의 인물, 세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어야 한다.

2016년 붉은 원숭이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신비의 황금 복 돼지!!



소원성취, 氣 효험 입소문 하루에도 수 십명 찾아와..

매년 100회 이상 (氣, 역학) 전국 순회강연  
뜨거운 찬사, 만녕스님 황금 복 돼지의  
숨겨진 비밀은..

NAVER 검색창에 만녕스님 을 쳐보세요  
| 만녕스님 친견 인생상담 접수중 |



황금 복 돼지를 그리시는 만녕스님

정월 초하루 새벽 팔공산 갯바위 공기는 차고 매서웠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어김없이 갯바위로 신년기도에 들어가는 만녕스님 여느 해와 다름없이 108배를 올리고 무상의 경지에 들은 스님에게 갑자기 무아의 경지에 빠져드는 현몽을 꾸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세상이 온통 황금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니 금의를 입은 부처님의 형상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앉아계셨다. 그 부처님 사이로 금빛이 유별나게 빛나는 황금 복돼지 두마리가 달려와서는 스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었다. 그 현몽을 하고나니 날아가고픈 맑아진 영혼을 느끼며 사찰로 돌아온 스님은 매일 해오던 냉수마찰로 몸을 씻은 후 갑자기 붓을 들었다. 현몽에 보았던 황금 복 돼지를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돼지 그림이라고는 처음 그려보는 데도 현몽에서 본 돼지 모양이 똑같이 그려지는 것이 아닌가!!

데 보살님은 이 돼지 그림이 달마도 인 줄 알고 두말 않고 가져 가서는 아들 방 머리맡에 걸어두고 다음날 돼지 그림인 줄 알았지만 마흔 두 살 먹은 큰 아들이 십년동안 선을 약 5~60번 보았는데도 결혼 성사를 시키지 못 하였는데 이 그림을 걸고 보름만에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 소문을 듣고 노처녀 노총각을 둔 부모님들이 하루 에도 수 십명씩 돼지그림을 모셔가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었다.

대전의 모 젊은 보살님은 시집 장가 못 가서 찾아 오신게 아니고 남편이 공사장에 막노동을 하시는데 하루는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옮기다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 병원을 찾아가 보았으나 특별히 부러진데 다친데 진단이 나오지 않아 열흘동안 집에 누워 계시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가져다 걸고 이틀만에 멀쩡하게 일어나서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나가게 되었다.

대구 경산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처사분은 식당운영이 되지 않아 식당을 정리하고 전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돼지 그림 한점을 식당에 걸자 팔려고 하던 식당에 손님이 넘쳐나 옆 가게까지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 시켰다고 한다.

부산 동래 온천동에 계신 보살님은 오

년전에 지인에게 돈 삼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소식도 끊어지고 돈 받을 길이 없어 화병을 앓고 계셨는데 이 돼지 그림 한 점을 모셔놓고 열흘만에 돈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고맙다는 답례로 문안전화가 자주 온다고 한다. 위 사례 외에도 시험합격, 매매, 취업, 사업번창, 입찰 및 여러 사례의 감사전화가 빗발치고 있었다.

## 이 모두가 부처님의 원력

만녕스님은 원래 달마도 백호도, 같은 기화로 명성이 높았는데 황금 복 돼지를 줄곧 몇 년 동안 고집하여 그리시는 이유는 그려가신 분 마다 소원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효험의 소문을 듣고 하루에도 수십명씩 찾아오니 계속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중생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관용과 가피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그리실거라고 하신다. 사주 (생년, 월, 일, 시)가 스님의 머리속에 입력이 되면 혼이 담긴 한 점 한 점의 작품이 사주 따라 붓끝이 움직여 그려지는 것은 바로 갯바위에서 현몽해 주신 부처님의 원력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 053-657-0108  
대구 수성구 황금동 773-2 송곡사  
www.songgoksa.com

## 사주에 따라 그려지는 ..

그때 마침 달마도 한 점을 모셔가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서 광학렌즈사업을 하시는 중년 보살님 한 분이 정해년 첫 손님으로 아침일찍 송곡사에 찾아오셨다. 달마도를 모셔가기 위해 찾아온 보살님에게 달마도는 그려 드리지 않고 그리고 있던 돼지 그림을 한 번 모셔가 보십시오 하고 돼지 그림을 드렸다. 그런

